

'이상한파' 겨울 전력 부족사태

금호 구조조정 첫탄, 사장단 인사

광주·전남 사상 최대 수요량 잇단 경신

한전 전남본부 예비전력 비상 수준 접근



시교육청도 지난해 광주지역 전체 학교인 217개교에 651억원을 들여 시스 템에어컨을 설치했다.

한전은 이상한파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따라 최대 전력 수요가 7 천만kW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예비전력 400만kW 미만 시 단계별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26일까지 지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대책반

을 운영, 에너지 절약 실태조사를 통해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공공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피크시간대 전력 낭비가 심한 기업 명단에 공표할 계획 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12일 전기질 약을 촉구하는 특별 대국민담화를 통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내가 먼저'라는 마음가짐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략경영본부 사장 기옥씨
 대한통운 사장 이원태씨
 금호고속 사장 김성산씨



금호아시아그룹은 12일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에 기 옥 씨를 선임하는 등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임원수 20% 감축, 임원 임금 20% 삭감 등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사장단 18명 중 오남 수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 사장단 7명이 퇴임했으며 승진자는 없다. 금호는 이후 있을 임원 인사에서도 승진 없이 업무 조정에 따른 전보와 함께 임원 20%를 감축할 계획이다.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전략경영본부 사장에는 기 옥 금호석유화학 사장이 자리를 옮겨 선임됐고, 이국동 사장의 구속으로 공석이었던 대한통운 사장에는 이원태 금호고속 사장이 자리를 옮겼다.

또 금호고속 사장(금호터미널 사장 겸임)에는 김성산 금호고속 지행부문 사장이, 금호리조트 사장에는 한이수

금호에스티 사장이,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직무에는 윤용현 금호플라스틱 전무를 각각 전보 발령했다. 김성태 금호석유화학 부사장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는 등 관장업무가 변경됐으며, 기 옥 사장은 그 룹 전략경영본부 사장과 함께 금호미쓰이화학, 아스공항, 금호개발상사 사장을 겸임하게 됐다.

금호산업과 함께 위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지 난해 4월 부임한 김중호 현 사장 체제가 유지됐고, 채권단 과 자율협약을 맺은 금호석유화학도 기 옥 사장이 자리를 옮겼지만 사실상 유임됐다. 또 아시아나항공 운영주 사 장 도 유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겨울철 전력 수요에 비상이 걸렸 다. 폭설과 이상한파가 지속되면서 예비전력이 안정적 수준 밑으로 떨어 졌다. 12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전 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최 대 전력 수요량이 6천856만kW를 기록 하며 예비전력이 441만kW로 떨어졌 다. 지난 5일 오후 6시 6천690만kW의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후 6일 6천 786만kW, 7일 6천827만kW에 이어 나흘 연속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했다. 12 일에도 최대 전력수요가 하계피크인 6천321만kW를 554만kW 초과한 6천 875만kW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에서도 전력 수요가 급 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 두차례 최대 전 력 수요량을 경신한 데 이어 올들어 지난 7일 자정 482만kW를 기록, 또 다

시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했다. 지난 해 12월보다 무려 4.5% 급증했다.

이에 따라 통상 안정적 예비전력인 600만kW 밑으로 떨어져 비상 수준인 400만kW에 근접했으며, 전력 예비율 역시 5일 11.4%에서 8일에는 6.4% 까지 낮아졌다.

이같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원인 은 산업용 전력 소비 증가 영향도 있 지만 이상한파에 따른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가정용 난방기 기 보급 증가와 학교 등에 난방방이 가능한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기장관·담요 보급률은 2006년과 비교해 35%가 늘었고, 전 기난로 보급률 역시 33% 증가했다. 시스템에어컨은 2005년 31만9천대가 보급된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100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LG그룹 을 사상최대 15조 투자

LG이노텍 광주공장 LED 생산라인 3천500억도

매출목표 135조원

LG그룹이 올해 창립 이후 사상 최 대 규모의 투자와 매출 목표를 세웠 다.

LG그룹은 올해 총 투자 규모를 지 난해 11조7천억원보다 28%나 증가 한 15조원으로 확정하고 매출 목표도 지난해 125조원보다 8% 늘어난 135 조원으로 잡았다고 12일 밝혔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최근 "미래 준비를 보다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 며 "점진적 혁신이나 개선을 위한 투 자는 기본이고 중장기적으로 고객 니 즈(필요)가 변화하는 시기에 시장을 선 도할 수 있고 사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반기술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올해 시설투자에 지난해 8조7천억원보다 30%가량 증가한 11

조3천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과감 한 선행투자를 단행해 전자, 화학, 통 신·서비스 등 주력사업부문에서 미 래성장사업의 시장선점 기반을 구축 한다는 방침이다. 계열사별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부터 3조3천억 원을 들여 대형TV용 LCD시장 공략 을 위한 파주 8세대 라인을 증설하는 것을 비롯해 올해 총 3조5천억원 이 상을 투자한다.

LG전자는 태양전지 생산라인 증설 과 해외법인 생산능력 확대 등에 1조 5천억원의 시설투자를 한다.

특히 LG이노텍은 광주공장 LED 생산라인에 3천500억원을 투자해 예 로 웨이퍼 및 칩 전문 생산공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LED 시장 선점 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전략이 다.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지난해

3조원 보다 23% 증가한 3조7천억 원 을 투입할 계획이다. LG전자가 스마 트폰과 차세대 휴대전화,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TV', 3D, 신재생에너 지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2조1 천억원을 투자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98.64 (+4.52)
코스닥지수	538.11 (-2.29)
금리 (국고채 3년)	4.25% (-0.02)
원·달러 환율	1,123.60원 (+3.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기아차 노사 임금협상 결렬

기아차 노사가 12일 임금교섭을 재 개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 렬했다. 하지만 노조가 오는 15일까지 집중교섭을 양구, 양측은 14일과 15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경기 소 하리공장에서 서영종 사장과 김성락 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3 차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 측은 협상에서 지난달 30일 제시한 기본급 동결에 성과급 300%, 현금 46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거듭 제시하며 이 안을 조합원 총회에 부 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과급 300%와 현금 500만원에 현대자동차가 노조 원들에게 지급한 주식 40주에 해당하 는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할 것을 요 구하며 맞섰다. 노조는 14일 평의대 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협상과 투 쟁방식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농협 어린이 공부방

12일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 팜스테이 마을에 개설된 '학속 도우미 방'에서 어 린이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하트 모양을 그려보고 있다. 이 공간은 농협 전 남지역본부가 농촌사랑 운동의 하나로 개설한 공부방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광기술원 LED분야 지원 집중

작년 매출지원 효과 1,910억

한국광기술원의 광산업 기업지원 실적에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미 래 성장 동력의 하나인 LED(발광다이오드) 분야에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기술원이 12일 발표한 '2009 년도 기업지원분야 종합 성과'에 따 르면 지난해 시험인증 및 교정 지원 건수는 모두 1천396건으로, 지난

2008년 1천306건에 비해 6.9% 증가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미 래 성장 동력의 하나인 LED(발광다이오드) 분야에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LED 분야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광통신 32%, 교정 14% 등의 순이었다.

한국광기술원의 시험생산센터 지 원실적은 입주기업 매출액이 406억 원으로 지난 2008년 319억원에 비해

27.2% 늘었으며 상주 인력은 245명 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험생산센터가 광통신부품이나 LED 등 광부품 시험 생산 거점기지로 자리잡고 있다는 증 거다.

유은영 한국광기술원 원장은 "지 난 한 해 동안 기업지원 서비스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며 "시험 생산 유류증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생산유류증비나 이동형 교정지원 차량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 기업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1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부동산물건을 추천합니다.

구분	소재지	면적/건물	건평/가	최저가	비고
신도시	대구/안동	34222	2394년	2394년	전자재정예상
신도시	대구/안동	40292	1894년	1894년	온실하우스
신도시	대구/안동	11297	2094년	2094년	복합단지
신도시	대구/안동	13911	4974년	5974년	5974년
신도시	대구/안동	21911	1994년	1994년	대학가
신도시	대구/안동	2094년	1194년	1194년	대학가
신도시	대구/안동	1894년	894년	894년	394년
신도시	대구/안동	3924년	2924년	2924년	수원분지
신도시	대구/안동	1794년	2914년	2914년	894년
신도시	대구/안동	6794년	2294년	2294년	역시점
신도시	대구/안동	3794년	2194년	2194년	교차로
신도시	대구/안동	4994년	2974년	2974년	원문164년
신도시	대구/안동	5994년	3994년	3994년	2994년
신도시	대구/안동	1494년	7294년	7294년	대형역사
신도시	대구/안동	2294년	1494년	1494년	894년

분양 수완지구 롯데마트앞 임대
펠리스타워빌딩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프용품, 의류이탈,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2층: 패밀리레스토랑, 전문식당, 의류이탈, 아웃도어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비독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가, 영어, 수학, 입시,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카이라운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평 (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완동 롯데마트 옆 10×10×6m 코너 상업용지 270㎡ 투자되고, 수익률 최고, ㎡당 225만원
 ○점포임대○
 • 수완동 주원대리점(35m, 4번로) 3층사무실 140㎡ ㎡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점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당 150만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점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3층 620㎡ ㎡당 120만원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렌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공장급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 대지: 13,200㎡ (약 4,000평)
 ■ 건물: 6,600㎡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 (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 (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물류가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상담 후 결정(응자 30억 포함)
010-3617-8810